



차 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4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4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4
굴지의 과일생산기지	6
흥해가는 두메산골	10
선진적인 양어방법을 받아들여	12
전변된 금산포지구	14
공화국기를 휘날린 체육인들	16
평양의 저녁	18
관광명소들을 찾아서	22
직하리의 새 모습	26
교육환경이 일신된 교정에서	28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	30
어머니의 금지	32
흥성이는 대종운동봉사기지	34
《조선의 날》 행사 진행	36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한 전람회	37
대성산의 력사유적들	38
소식	40
국제무도경기위원회창립 20돐을 맞으며	41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제화의식 진행	4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4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표지: 주체조선의 영예를 떨친 체육인들 사진 조선중앙통신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국어, 로어, 영어로 발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4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 별관에서 조선로동당창건 74돐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무력 기관 일군들이 공연을 보았다.

당과 정부의 중요직책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관람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위상을 만천하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담아 최상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출연자들은 창건된 첫날부터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새겨안고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아 시대의 영웅, 력사의 창조자로 키워주며 인류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과 변혁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향도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혁명적당 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고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담은 시대의 송가들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오직 한길로 끝까지 가고가려는 조선인민의 억척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구가한 공연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끝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듯이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완수하는 길에 충성과 헌신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갈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글 최의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농장을 현 지 지도 하시 었 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지에서 농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농장에서는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수 있는 다수확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고 농장에서 새로 육종한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장에 첨단농업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해주며 이 농장에서는 매해 자랑할만 한 성과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 이곳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계속 투쟁을 벌리고있다고, 그래서 매해 와보면 을 때마다 흥미로운 과학기술적성파를 안고 기다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확고히 견지하며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기앞에

나선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과학기술중시관점과 일본새를 국풍으로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드팀없이 관철하자면 농업과학연구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업과학연구부문에서 중, 산간지대와 저수확지대에서의 생산량을 높일수 있는 영농방법을 연구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온실과 농작물시험 및 재배포전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육종 및 육종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종자육종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온실에서 재배하고있는 파와 고추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우수한 남새작물들을 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글 문광봉



굴지의 과일 생산기지

나지막한 구릉들과 모래성분이 많은 충적지로 이루어진 평양시 삼석구역경내의 대동강연안에서는 10여년전까지만 해도 발농사가 기본이었다.

그러했던 이곳은 1 000여정보의 면적을 차지하는 현대적인 과수원이 조성되는것과 함께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과일말린편공장, 대동강폐지공장 등이 건설됨으로써 종합적인 과일생산 및 가공기지로 변모되었다.

봄이면 흰구름이 내려앉은듯 하얀 사과꽃바다를 펼치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황금열매 주렁진 가을이 왔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훌륭한 과일대풍을 안아올 일념 안고 년초부터 아글타글 애써온 이곳의 근로자들이다.

과수 대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 의해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정보당 수십t씩 내어 지력을 높이고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들을 자체로 생산리용하여 과일나무들의 영양상태를 개선시켰다.

그리고 나무모보식, 가지자르기, 병해충구제, 열매숙음도 적기에 질적으로 하는 등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여 수십여일간 지속된 가뭄과 고온현상 등 불리한 일기조건을 이겨내며 올해에도 흐뭇한 작황을 마련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된 과일들은 수도시민들에게 공급되는 한편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단물과 술, 식초, 향수를 비롯한 과일가공품들로 전환되고있다.

주체103(2014)년에 ISO 22000 식품안전관리체제인증을 받은데 이어 매해 진행되는 정기적인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이 공장에서 현재 생산되는 식료품, 화장품들은 37종에 140여가지나 된다.

《대동강》상표를 달고있는 이 모든 제품들은 천연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것과 함께 질이 매우 높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미에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여러가지 과일가공품들을 생산하고있다.

흥해 가는 두메산골



아름드리나무들이 꼭 들어찬 산밭들, 산기슭을 따라 아담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들, 골짜기며 산릉선들로 구름처럼 흐르는 염소떼, 젖소떼들 ...

이것은 평양시 강동군 읍에서 동쪽으로 100리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마을에 펼쳐진 풍경이다.

두메산골인 이곳은 부침땅이 매우 적은데다 그나마 경사진 돌밭이 태반이어서 알곡소출도 매우 낮은 곳이었다.

그러한 구빈리가 20여년전부터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이곳 사람들은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어있고 산이 많은 실정에 맞게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한 국가의 정책을 구현하는데서 자기 마을이 부흥할 방도를 찾았던것이다.

모두가 달라붙어 주변의 산들에 1 000여정보의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을 조성하고 근 100개에 달하는 염소우리들 그리고 젖소우리와 토끼우리 등도 하나하나 일떠세웠다.

염소젖을 가공하는 젖가공장도 꾸려놓았다.

점차 축산기지에서 나오는 거름원천을 리용하니 지력도 달라졌다. 축산이 잘되니 농사도 잘되고 농장살림이 흥해가니 집짐의 살림도 더욱 윤택해진다고 이곳 농장원들 누구나 말하고있다.

오늘 구빈리사람들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집짐승들을 기르고있으며 평범한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축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체나름의 일가견을 가지고있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젖가공장에서는 해마다 수백t의 신젖과 치즈, 빠다를 생산하고있다.

신젖과 빠다, 치즈를 비롯하여 이곳에서 나는 질이 높고 맛이 독특한 젖가공품들과 함께 농장은 이미 시는 물론 전국에 널리 알려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하여 구빈리를 찾고있다.

사진 리광성
글 박병훈





선진적인 양어방법을 받아들여

나라의 도처에 현대적인 양어기지들이 생겨나 활발히 운영되는 가운데 함경남도 함흥시 흥덕구역에 새 메기공장이 일떠서 지난 5월 조업하였다.

종어호동과 알깨우기호동, 비육호동, 종합조종실, 사료가공장 등이 들어앉은 공장의 연건축면적은 1만 5 900여㎡이고 생산능력은 연간 수백t에 달한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활동과정에 나오는 온수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공정과 함께 태양열집광집열기들을 리용한 더운물생산공정도 갖추어진 공장은 계절에 관계없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어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선진적인 양어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 힘을 넣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경영활동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종어체계를 튼튼히 확립하고 인공수정과 자연수정을 잘 배합하여 알깨우기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것과 함께 새끼고기 단계부터 물온도와 산소함량 등을 정확히 보장하고있다.

한편 과학연구단위들과의 련계밑에 영양발효먹이를 개발생산하여 물고기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있다.

또한 단백질함량과 먹이실수율을 높일수 있는 사료가공방법을 도입하여 생산을 늘이면서도 먹이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있다.

하여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함흥메기공장의 생산품들이 이미 시안의 급양봉사기지들에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수많은 새끼고기들을 도안의 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박영조





황해남도 은률군의 금산포는 쇠돌이 많이 나는 고장에 있는 포구라는 데로부터 지명이 유래된 곳이다.

오랜 세월 조선서해의 검푸른 물결이 기슭을 스치고 고기배들이 드나들던 이 일대의 풍치는 1970년대 중엽 은률광산에서 나오는 박토를 처리하기 위한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건설되어서부터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날바다의 한복판으로 뻗어나간 벨트콘베아수송선은 준공의 동음을 울린 때로부터 2년도 못되는 사이에 해안에서 10여리 떨어져있던 능금도를 록지와 연결시켰다.

그 다음의 반년 남짓한 기간에는 능금도와 웅도가 연결되었다. 계속하여 웅도로부터 청량도까지, 청량도에서부터 과일군 월사리

전 변 된 금 산 포 지 구

까지 그리고 능금도에서 취도까지 방조제가 힘차게 뻗어나갔다.

방조제가 쌓아지는 것과 함께 수천정보의 간석지가 개간됨으로써 파도소리와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울리던 이 지구는 완전히 변모되었다.

오늘 능금도에서 은률광산방향을 바라보면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중심으로 량옆에는 도로가 시원하게 나있고 기름진 논밭과 소금밭으로 전환된 4 700여정보에 달하는 간석지땅이 무연히 펼쳐져 있어 지난날의 바다가흔적을 좀처럼 찾아볼수 없다.

이러한 금산포가 2년전 또다시 변모되었다.

조선민족이 즐겨하는 발효식품인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가공공장과 그 운영에 필요한 수산사업소가 풍치수려한 능금도

에 일떠선것이다.

이로써 자기의 지명에 걸맞는 경관을 다시 찾은 금산포지구가 지금 석도방향으로 전진하고있는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과 더불어 앞으로 보다 훌륭히 전변되리라하는것은 론할 여지도 없다.

사진 최원철
글 김선경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이 일떠서 새우젓, 멸치젓, 까나리간장을 비롯한 맛좋은 젓갈품들과 물고기간장들이 생산되고있다.



수천정보의 옥토가 생겨나고 로동자들의 살림집들과 금산포수산사업소 등이 일떠섰다.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조선선수들은 34개의 금메달을 비롯한 많은 메달을 쟁취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단연 제1위를 차지하였다.



공화국기를 휘날린 체육인들

조선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고있다.

태권도선수들은 지난 8월 불가리아에서 진행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나라별종합순위에서 제1위를 하고 태권도모국의 존엄을 빛내었다.

조선, 중국, 로씨야, 우크라이나, 벨라루씨를 비롯한 7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태권도선수 9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조선선수들은 우승컵 3개와 금메달 3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4개를 쟁취하고 4개의 개인기술상을 받았다.

지난 9월 타이에서 진행된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력기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의 세부종목들에서 5개의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엄운철선수가 남자 55kg급경기 추켜올리기와 종합에서, 박정주선수가 남자 67kg급경기 추켜올리기에서, 림정심, 최효심선수들이 녀자 76kg급, 59kg급경기 끌어올리기에서 각각 세계기록을 갱신하였다.

조선의 남녀력기선수들은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5개를 쟁취하였다.

박영미선수가 지난 9월 까자흐스탄에서 진행된 2019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녀자레슬링 53kg급경기에서 영예의 제1위를 하고 조선의 첫 녀자레슬링선수권보유자가 되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선수권대회보다 큰 규모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

에는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주요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였거나 순위권안에 든 전적을 가지고있는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박영미선수는 준준결승경기에서 꾸바선수를, 준결승경기에서 중국선수를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누르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여 세계선수권을 보유한 전적이 있는 일본선수와 대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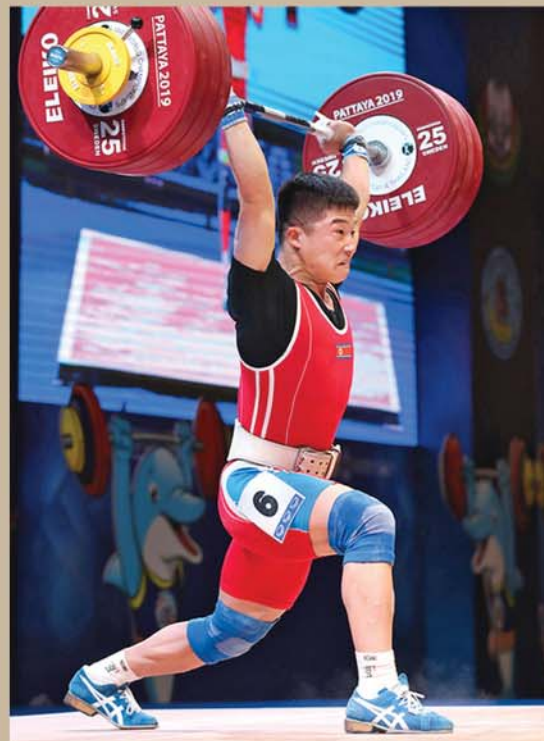
그는 평시에 련마한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자기의 특기를 잘 살려 일본선수를 경기시간이 되기 전에 12 : 1로 타승하고 세계패권을 당당히 잡았다.

훌륭한 성과를 안고 조국으로 돌아온 체육인들은 평양시민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축하를 받았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이림



2019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녀자레슬링 53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박영미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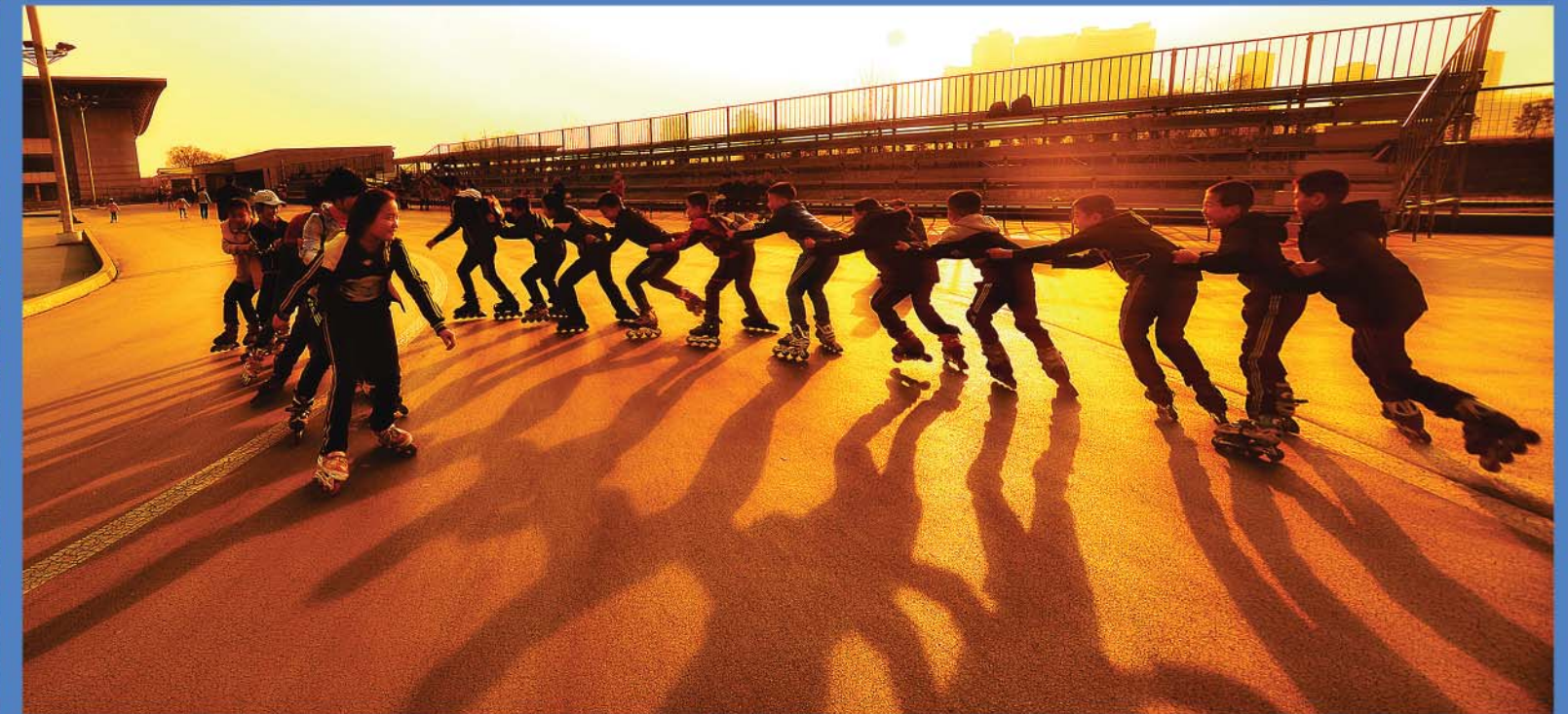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조선선수들은 5개의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7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평양의 저녁





깊어가는 평양의 밤과 함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향만이 더욱 넘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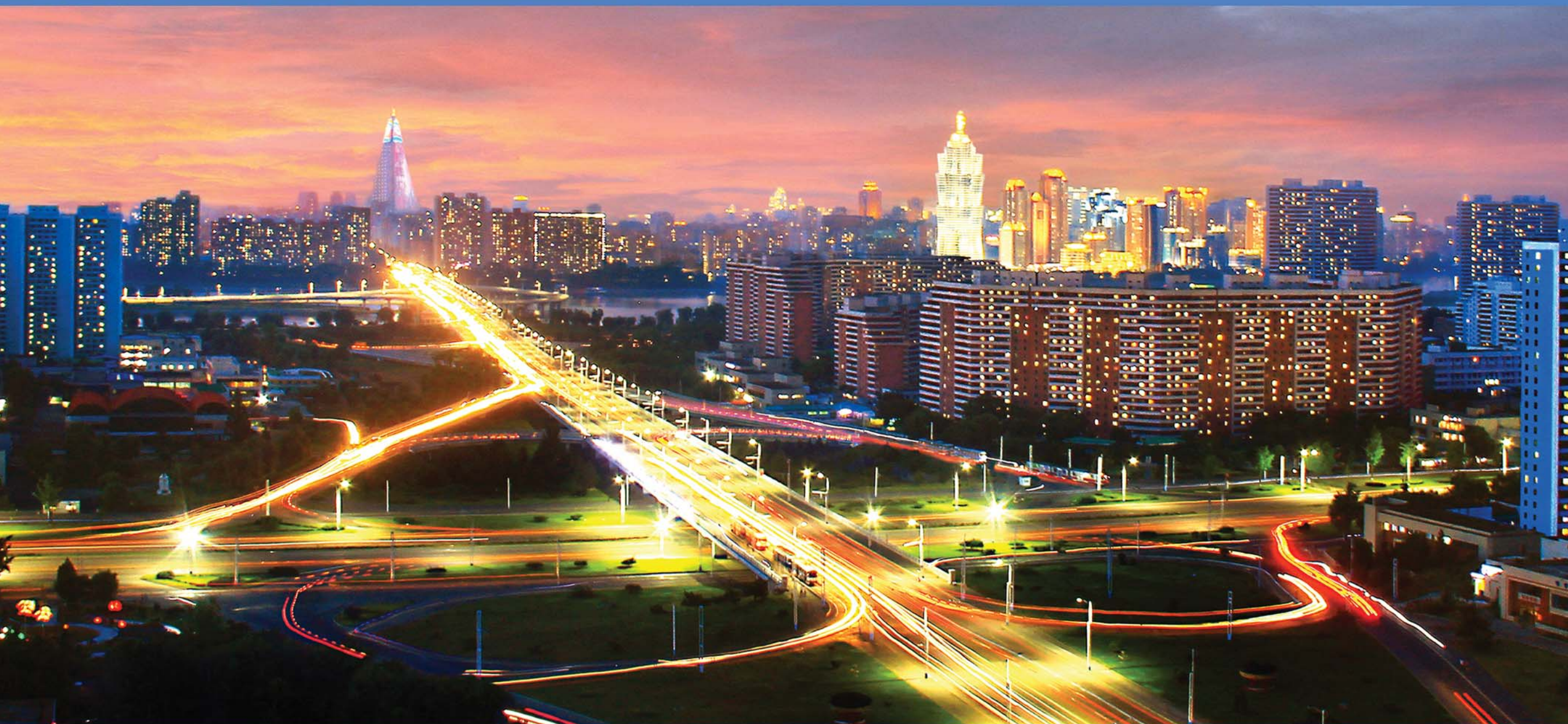


사진 리명국, 리진혁



관 광 명 소 들 을 찾 아 서

예로부터 금수강산으로 불리워 오는 조선에는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과 같은 명산들이 솟아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강과 호수, 바다가퐁치들이 도처에 펼쳐지고 지하에도 룡문대굴, 송암동굴과 같은 명소들이 있어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여름철에도 그러하지만 온 강산이 금빛으로 단장되어가며 풍만함을 이루는 가을철에도 전국각지의 명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관광객들로 흥성인다.

인민들이 더욱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많은 명승지들이 훌륭히 꾸려지는것과 함께 새로운 명소들이 계속 개발되고 교통과 호텔조건 등도 현저히 개선되어가고있는 최근년간에 이르러 특히 그러하다.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산인 해발 2 750m의 백두산에 오르는 관광객들은 누구나 그 웅건한 자태에 심취되어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명산들에 대한 관광에서 제일 인기있는것은 묘향산관광이다.

수려한 산발들과 기암들, 폭포들의 경치를 한껏 부감할수 있는 상원동과 만폭동으로의 탐승,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국제친선전람관과 역사유적들에 대한 참관 등으로 이어지는 관광로정은 찾는 곳마다 커다란 감흥을 불러일으켜 일정이 어느새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누구나 아쉬움을 표한다.

예로부터 조선의 명산으로 이름높은 금강산을 비롯한 조선동해기슭의 명승지들도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강원도 원산시의 마식령지구에 꾸려진 스키장도 스키관광을 위하여 찾아드는 사람들로 더욱 활기를 띤다.

해발 1 363m에 달하는 대화봉의 정점에서 시작되어 산발들을 꿰지르며 5 000m이상으로 뻗어간 주로를 비롯한 10개의 스키주road들이 있는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체력을 단련하고 장쾌한 해돋이와 자연경치



도 부감하게 된다.

조선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918년-1392년)의 수도였던 개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도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왕건왕릉과 만월대, 선죽교와 같은 역사유적들과 옛거리의 모습이 보존되어있는 조선기와집구역 등을 돌아보고 이 지방의 특산음식도 맛보면서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들이다.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사진으로 남기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속생각을 굴린다.

다음번엔 어디로 갈가 하고.

사진 최원철
글 강수정





역사유적들을 돌아보는 관광객들



직하리의 새 모습



청진-라선간 도로를 따라 차를 달리 함경북도 청진시의 서북쪽교외를 지나느라면 한쪽의 그림같이 펼쳐진 농촌마을을 보게 된다.

과수원화된 야산들을 배경으로 규모있게 자리잡은 이 주택지구는 청진시 청암구역 직하리의 소재지마을이다.

지난날 너무 척박해서 피나 심던 지대의 아래쪽에 있다고 하여 지명이 유래된 직하리는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고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사회주의농촌문화의 본보기들을 계속 창조해갈 일념 안고 펼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리의 농업근로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최근 소재지마을이 또다시 변모되었다.

90여동의 문화주택들과 함께 실내물놀이장까지 갖춘 종합편의시설인 직하원, 농업과학기술보급실 그리고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이 현대적미감에 맞게 새로 일떠섰다.

그리고 이미 있던 110여동의 농촌살림집들과 고급중학교, 리문화회관 등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 면모를 일신하였다.



또한 마을의 도로들과 다리가 일매지게 포장되고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주변에 여러종의 과일나무들이 심어졌다.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판들이 설치되어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조명을 보장하고있다.

도시부럽지 않은 문명한 생활터전에 새 보금자리를 편 직하리사람들의 자랑과 기쁨은

더 높은 농업생산성파를 이룩해갈 열의로 승화되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교육환경이 일신된 교정에서

근 50년의 발전로정을 새겨오는 평성교원대학부속 평성시 중덕소학교는 전국에 널리 알려진 교육단위의 하나이다.

최근년간 학교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교육성가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있다.

학교에서는 후원단체들과의 협력하에 다기능화된 수십개의 교실과 종합강의실, 음악무용실 등이 갖추어진 5층짜리 2호교사를

완공하였다.

1호교사의 내부부도 새 세기 교육단위답게 일신시키고 교실들마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책상들도 모두 새롭게 갖추었다.

운동장에는 1 800여㎡의 인공잔디를 깔고 로라스케트주로를 닦아놓았으며 수십여점의 체육기재들을 새로 설치하였다.

또한 수영장과 탁구장도 개건하였다.

학교에서는 소학교부문 교육내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데 맞게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교원들속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이는 속에 새로운 교수방법들이 람구, 도입되고 여러가지 교편물들이 창안제작되어 교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인식능력을 높여주고있다.

하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최우등생의 자랑을

계속 펼쳐가고있으며 여러명의 학생들이 전국적인 알아맞추기경연에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축구, 수영, 탁구소조를 비롯한 과외체육소조들에 망라된 학생들도 전국적인 경기대회들에까지 나가 많은 메달들을 쟁취하였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평양제1중학교와 금성학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는 해마다 더욱 늘어나고있다.

사진 리룡운
글 김선경





제 17 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영화인들의 관심 속에 지난 9월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진행되었다.

20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시내 근로자들과 중국, 로씨야, 스웨리에, 오스트랄리아, 캐나다의 명예 손님, 대표단, 대표들, 조선과 중국, 로씨야, 쿠바, 스웨리에의

국제심사원들이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축전에 출품된 영화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 다음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의 개막연설이 있었다.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는것은 진정한 영화예술의 사명이며 영화인들의 숭고한 의무이라고 하면서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영화인들의 기대에 맞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이 출품되어 이번 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27일에 진행된 축전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해당한 시상이었다.

제17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은 자주, 평화, 친선의 축전리념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고수하고 세계 여러 나라 영화인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사진 리철진
글 고철수



로씨야영화협회 회원, 국제심사위원회 위원장 유리 아나폴리에비치 미쭈친

교류와 협력을 더 강화하여

평양국제영화축전은 사람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력하여 영화계의 발전을 이룩하자는데있다.

교류점, 접촉점을 많이 만드는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진하게 된다.

축전에서는 무엇이든 새로운 점을 찾는것이 중요하다.

영화에는 그 나라의 특징이 반영되게 되는데 그 매개 나라의 특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요점으로 된다.

나는 앞으로 조선인민이 더욱 번영하며 물질적으로뿐아니라 모든 면에서 강해지기를 바란다.



스웨리에코너영화회사 제작자, 국제심사위원회 위원 헨리크 니드크비스트

또 오고싶은 축전

조선에 올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특히 평양은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평양국제영화축전도 2012년부터는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올해에 뜻밖에도 국제심사원으로 선거되었는데 모든 영화들을 평가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기회만 있다면 계속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하고싶다.



중 국 배 이 정 중 금 원 영 화 문화보급유한공사 리사장, 국제심사위원회 위원 황성건

축전규모에 탄복하였다

평양국제영화축전에 두번째로 참가하였는데 이전에 비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축전에 참가하는 나라들 그리고 출품된 영화들의 수와 질적수준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번에 국제심사원으로서 많은 영화들을 보았는데 모든 영화들의 내용이 평양국제영화축전의 기본리념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또 영화들이 자기 나라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데서 높은 질적비약을 이룩하였다.

앞으로는 내가 만든 영화도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출품되기를 희망한다.

어머니의 공지

해마다 어머니날인 11월 16일이면 온 나라 가정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산시 광석동에 있는 량영섭, 오명희부부의 집도 여느때없이 흥성인다.

아들딸들이 어머니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모두 찾아드는 이날이면 흘러온 나날에 대한 추억도 감회깊은 오명희녀성이다.

년로보장나이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원산시 제1인민병원 간호장으로 일하고있는 그는 네자식을 낳아 키웠다.

처녀때부터 몸집이 체소해서 애기어머니시절 아이를 업고 나서면 누나가 동생을 업은것 같다고 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자식들을 키우는것이야말로 녀성의 삶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 자식들의 성장에 일일이 관심을 돌리느라 애썼지만 여럿이다나니 설편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자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옷사람들을 존경하며 동무들과 화목하도록 이르는것만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외딸을 포함한 네자식 모두를 조국 보위조소으로 차례로 떠나보냈다.

이제는 그 자식들모두가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었다.

하지만 그들이 보건부문과 교육부문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집단과 동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오늘에 와서도 자식들에 대한 근심은 덜어지지 않는다.

원산시 방하산종합진료소 소장인 맏아들 량금석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있어서도 이날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지는 날이다.

철없을적에는 일요일, 명절날에도 긴급한 수술이 제기되면 자기들의 결을 떠나 병원으로 달려가군 하던 어머니가 야속했었다. 엄마는 우리보다 낮토를 환자가 더 중한가 하고.

점차 어머니의 마음속에 간직된 정은 자식들을 위한것과 환자들을 위한것으로 구분되어있는것이 아님을 깨달은 그들이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환자에 대한 개념과 자식에 대한 그것은 같았던 것이다.

지난 1960년대 중엽부터 간호원으로 일해오는 어머니가 지금까지 참가한 수술회수는 5만 5천여회, 담당하여 치료하여 완패시킨 중환자는 1만 5천여명, 최종중환자는 1 800여명에 달한다.

그래서 주체95(2006)년에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어머니이다.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정을 안다고 이제는 어머니의 수고를 조금은 알듯 싶은 그들이다.

하여 이날을 맞으며 어머니에게 간절히 아뢰인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사진 안철원
글 최광호



원산시 제1인민병원 간호장 오명희



흥성이는 대중운동봉사기지

평양시 락랑구역에 자리잡고있는 통일거리 운동센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대중체육 열기를 한눈에 느낄수 있는 곳이다.

지하층과 지상 4층으로 특색있게 일떠선 건물의 곳곳에 꾸러진 여러개의 건강운동실과 건강회복실들 그리고 물동보급실, 탁구장 등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건강운동실들에는 다리근육발달운동기재, 팔근육발달운동기재, 달리기운동기재를 비롯한 61종에 140여대에 달하는 운동기재들이 주련히 갖추어져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호와 체질, 연령, 건강상태에 따르는 운동기재들을 선택하여 육체를 단련하고있다.

현대적인 치료 및 안마설비들이 갖추어진 건강회복실들도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가닿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량자공진자기마당분석기를 통하여 손님들의 신체적 조건과 건강상태 그리고 그에 맞는 운동치료방법과 운동강도, 회수와 주기 등을 알려주는 봉사가 인기를 모으고있다.

경추증, 상박관절주위염, 뇌출혈, 뇌혈전을 비롯한 신경 및 혈관계통질병을 앓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를 통하여 적합한 운동방법을 알고 몸을 단련하여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

이곳 연구사들은 사람들의 직종과 신체적

특성에 맞는 운동 및 물리치료방법과 그에 따르는 영양섭취방법을 제시하는 운동방법 프로그램 《청생》을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 가고있다.

신체의 각 부위에 좋은 자극을 주는 초음파 설비들과 함께 덕수 및 한증시설들이 꾸려져 있는 수중초음파실도 하루일을 마친 근로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즐기는 곳이다.

건물앞에 펼쳐진 드넓은 야외운동장의 축구장과 롱구장, 배구장들도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의 열기띤 경기들로 매일같이 흥성이고 있다.

사진 리철진
글 박영조



자기들의 기호와 체질, 연령, 건강상태에 따르는 운동기재들을 선택하여 육체를 단련하고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운동센터에는 건강회복실, 수중초음파실, 청량음료점 등이 꾸려져있다.



《조선의 날》 행사 진행



지난 9월 9일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조선의 날》행사가 진행되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외교부를 비롯한 중국의 관계부문 일군들, 중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등이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2019년 베이징세계원예박람회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1돐을 맞으며 《조선의 날》행사를 의미있게 진행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의 커다란 심혈이 깃들어있는 조중친선은 김정은위원장동지와 습근평주석동지사이 맺어진 두터운 신뢰와 친분관계에 의해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변함없이 공고발전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을 소개하는 목화편집물을 시청하고 축하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세계원에 박람회장에 꾸러진 《조선원》을 참관하였다.

사진, 글 홍광남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한 전람회

지난 9월 제15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었다.
중국, 월남, 몽골, 인도네시아, 이팔리아 등 여러 나라와 국내의 350여개 회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에는 전기전자, 건재 및 기계, 경공업제품 등이 출품되었다.
23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들, 주조 외교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단 성원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전람회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주와 친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은 평양국제상품전람회의 영원한 주제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나라들사이의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전람회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사진 홍래웅
글 최성순



대성산의 역사유적들

대성산성의 남문



평양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승지의 하나인 대성산에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전하여주는 역사유적들도 수없이 많다.

유적들의 대다수는 조선의 첫 봉건국가였던 고구려(B. C. 277년 - A. D. 668년)가 평양지방으로 진출한 3세기경부터 7세기 중엽에 이르는 시기에 형성된것이다.

이곳에는 3세기경부터 고구려의 남방진출기지의 하나였으며 수도가 평양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그를 지키는 중요한 방어시설이었던 대성산성이 있다.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봉우리들을 연결하여 쌓은 성의 둘레는 7 000여m에 달하였다.

성의 북쪽에는 험준한 산줄기들이 첩첩히 잇닿아있고 동쪽과 서쪽은 급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대동강쪽으로 향한 골짜기가 있는 남쪽에는 겹성을 쌓아 든든하게 하였다.

성에서는 20여개의 성문터, 65개의 치자리 그리고 랑곡창고터와 장대, 병영, 무기고자리들이 발굴되었다.

현재 소문봉의 200m구간의 성벽과 남문 등이 원상대로 복원되어있다. 대성산의 남쪽기슭에는 427년부터 586년까지 고구려의 왕궁이었던 안학궁의 터가 있다.

흙과 돌을 섞어서 쌓은 궁성벽이 궁터를 방형으로 둘러싸고있는데 그 한변의 길이는 622m이다.

안학궁터



그리고 동, 서, 남, 북에 각각 문터가 있다.

궁전에는 총건평 3만 1 458㎡에 달하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었던것으로 하여 현재 수천여개의 주춧돌과 주춧자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대성산에는 역사가 오랜 불교사찰인 광법사가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374년-412년)시기에 세워진 이 사찰은 지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에 체국주의자들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가 주체79(1990)년에 원상복구되었다.

대성산일대에는 고구려시기의 무덤이 1 000여기나 있다.

무덤들은 주로 돌칸흙무덤과 돌각담무덤이고 일부 벽화무덤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과 말, 수레, 현무, 개마무사 등이 그려져있다.

대성산의 역사유적들은 당시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생활과 풍속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다.

사진 신충일
글 고철수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사찰인 광법사의 대웅전과 천왕문의 사천왕상



고구려무덤떼의 일부



물주머니의 일부



소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베네수엘라당 및 정부고위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방글라데슈로동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상임비서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소장이 쿠바공화국 최고검찰소대표단을 만났다.



이탈리아국제그룹 리사장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국제무도경기위원회창립 20돐을 맞으며



국제무도경기위원회창립 20돐 기념모임이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친선, 협조, 발전의 리념밑에 평화로운 새 세계 건설을 지향하며 세계무도사에 자랑스러운 경륜을 수놓고있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가 지난 9월 창립 20돐을 맞이하였다.

평양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인 리용선 국제태권도련맹 총재를 비롯한 위원회 집행위원들, 성원들, 여러 나라 무도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미예



국제무도경기위원회창립 20돐기념 무도시범출연과 친선련환모임이 있었다.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 진행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 봉화채화의식이 9월 18일 평양의 청춘거리 체육촌에서 진행되었다.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는 11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다.

의식에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인 리용선 국제태권도련맹 총재를 비롯한 위원회 집행위원들과 성원들, 제8차 국제무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대표, 여러 나라 무도대표들과 조선무술련맹 위원장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과 태권도인들, 평양 시내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이림



